

제자훈련생 소감문

제7기 제자훈련생 전선영

나를 변화시킨 믿음의 모델...하나님 품 안에서 영혼의 닳을 내립니다.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자신만을 사랑하며, 타인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타인을 위한 수고와 희생은 원치 않았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던 중,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의 주변에는 진실한 믿음으로 서로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삶에서 행하시는 장로님, 권사님과의 만남은 저를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습니다. 차세대 사역과 찬양 사역에 늘 한결같이 섬기시는 집사님들과의 만남 또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게 했습니다. 20여년 넘게 교회 출석하였지만 믿음의 닳을 내리지 못한 채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고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느라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착하게만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무지(無知)에서 오는 착각과 오만이 저를 무지만 믿는 자로 살게 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담아보지도, 쉽게 입 밖으로 내뱉지도 않았던 제게 그분들의 선한 영향력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게 했습니다.

제자훈련 첫 시간, "전인격적 신앙성장을 위해 '자-정-의'의 성장이 필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마음에 담는 작업을 거쳐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닳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지식도, 기도도, 삶에 적용 중 어느 하나도 저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된 지 5주쯤 됐을 때 감기에 걸려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라며 원망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며 영혼의 생명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라는 것과 바른 기도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올바른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담아서 진실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훈련 중 말씀을 한 장씩 읽어가며,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알아가니 어느덧 하나님은 제게 풍성한 믿음을 채워 주셨습니다. 초등 학문에 열중하고 목표로 삼았던 나의 일상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 교인처럼 영적으로 어린아이 짓을,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갈망한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해주셨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조금씩 변화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제 영혼의 닳을 내립니다. 제게 귀한 신앙의 모델을 보내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역훈련생 소감문

제6기 사역훈련생 안은희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여직장인반에서 사역훈련을 받은 안은희입니다. 작년에 제자훈련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신앙은 훈련의 연속이다'라는 생각에 사역훈련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부부가 훈련을 잘 마치면 저희 가족에게도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슴 벅차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역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니, 세상 일들의 무거움에 '사역훈련을 정말 내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더하여져서, 마음을 잘 잡지 못하고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담당 목사님께 "너무 죄송한데... 저 못 할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래도 다시 한 번 기도해 보세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거예요"라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새벽기도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목사님께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그 날 선포되었던 이사야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며 '다시 해봐야겠다! 무엇이든 구하고 기도로 나아가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사역훈련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삶과 신앙을 돌보시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시는지 알게 된 사역훈련이 앞으로의 저의 신앙의 여정에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잘 지도해 주신 목사님과 저희 여직장인 사역반 모든 성도들의 하나 된 마음이 주님께 열납됨을 믿으며, 모든 영광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